

# 敎養敎育의 敎科體制

## — 綜合大學을 中心으로 —

康 宇 哲

(梨花女大 社會生活科)

### 1. 理念과 實際의 다리

해방이 되자, 이른바 綜合大學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고, 敎科編成도 敎養과정과 專攻과정으로 大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지내 왔다.

1970년대 實驗大學의 發想을 계기로 교양교육에 대한 改革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연구가 생겨나고, 대학별 自體評價도 활발해졌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大學街는 물론, 學生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연한 현실이다. 그 원인은 ① 文敎부의 劃一的 敎科編成 강요, ② 대학의 大單位강의와 外來講師 의존, ③ 專任敎授의 교양과정 담당 忌避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大學敎育의 理念과 敎養과정의 意義 및 필요성에 대해 멋진 文章表現과 함께 敎育의 哲學을 전개시켜 놓은 연구물이나 論說이 적지 않다.

이러한 論議들이 이론에 그치고 교양과정 프로그램 編成이나 敎授要目, 敎授方法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양과정의 實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을 규명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大學들에 改善이 아닌 革命的 탈바꿈이 없으려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理念과 敎壇活動은 계속해서

平行線을 달리는 道理밖에는 없을 것이다. 理念의 단계에서 政策의 단계로 내려와야 實踐의 단계로 具體化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실천 결과를 評價하여 理念의 次元으로 다시 還流하는 순환작용을 계속하여 나가는 데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음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 中間단계의 政策次元은 온건할 경우에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고, 과도하게 革新하려 들면 保守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모든 교육의 개혁이 그러하지만, 오늘날 우리 大學의 實情은 投藥보다는 手術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다. 교양교육의 개선도 敎科編制의 계획부터 대폭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을 가능케 하여 줄 先行條件부터 과감하게 手術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2. 先決되어야 할 諸與件

교양교육이 더 效率의이기 위해서는 大學의 風土가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自律性이나 自由개량을 주장하지만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되어 왔다면 이렇게까지 他律을 自招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自認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학 발전의 要因을 데

학 속에서 찾아 보자는 뜻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첫째로, 한국의 종합대학은 지나치게 관에 박은 單一類型이며, 單科大學은 특수한 경우(神學大學 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종합대학 指向의이다. 이런 單一化 속에서 유독 교양과정이 多元化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문교부에서는 손쉽게 統一된 單一案으로 전국의 대학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劃一案을 만들어 낸 문교부의 정책자문을 맡은 사람도 대학교수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自律이니 他律이니보다는 大學自體가 지닌 모순점도 여기 첨가시켜야 할 선결 要件이다.

한때 대학의 特性化를 주장하여 일부 學科의 定員을 수십 배로 늘리는 정책을 썼으나 10년도 못 가서 무너져 버렸고, 종합대학은 여전히 百貨店式이다. 원래 百貨店이란 무엇이나 손쉽게 살 수 있는 中間層品質을 파는 곳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大學의 認可, 大學育成的 科學化라는 기술적 次元의 適用이 없이 事務的이고 法規的인 處方만으로 大學이라는 重大機關을 統整해 주는 習性을 고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基本的으로 엘리트 양성, 專門職 양성, 技術職 양성, 예술가 양성 등 4가지만으로 분류하더라도, 이 많은 분야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것이 모든 大學의 理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大學이나 교육목표는 大同小異하다. 심오한 眞理(學問)탐구, 有能한 人材 양성, 指導者 양성 등 추상적 德目을 나열하였을 뿐 대학별 特性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종합대학안의 단과대학에서 다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교는 10여 개가 넘는 단과대학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의 종합대학은 特性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사회가 知的 엘리트교육을 포기하는, 특수 대학을 容認하지 않는 風土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英才가 못 되는 學生도 英才가 되려고 기를 쓰는 것이 한국 사회이다.

이를 改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手術이 아니고 投藥으로서 도저히 치유불능한 증상이다. 더구나 手術方法에는 異論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部位에서부터 手術을 해야 할

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方法論이 오늘의 主題가 아니어서 詳論은 피하지만 이 과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양과정에 대하여 더 연구할 흥미도 없으며 妙案이라는 것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문제를 入試制度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俗된 판단을 좇아가거나 이에 밀려 다니는 政策은 後進性的인 전형적 교육관이다. 所得 1萬불의 日本과 2千불의 한국의 과의는 그 배경부터 다르다는 것을 왜 分析해서 弘報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는 교양과정을 전체 과정의 30% 내외에서부터 40% 내외까지 課하고 있으며, 學點數는 40~60학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系列性이나 學科로 다른 것이 아니라 單位大學校別로 統一되어 大學校別로 이수學點이 다를 뿐이다. 單位大學校 안에서도 分野에 따라 교양과정의 要求학점이 다른 대학의 研究的 실험에 관한 정보를 들어 보지 못한 것은 조사 부족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교양과정의 教科편성을 ① 語文學科目, ② 探索科目, ③ 理念·思想교육(人間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때 그 比重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多樣性을 추구하기에는 현재의 대학들이 너무나 硬直되었음을 自省해야 할 것이며 이는 대학 스스로가 고쳐 나가야 할 과제로 본다.

大學院中心大學, 學部中心大學, 學部만의 대학이라는 區分도 서로 다른 형태의 교양교육을 試圖해 볼 만한 單位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類型에 따른 교과 운영은 문교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大學이 단독으로 변경하기도 어렵다. 政府, 大學當局, 教授 그리고 地域社會가 協同하여 진정한 현실적 教育目標을 세우고, 이에 따른 手術을 順次性에 따라 執刀해 나가야만 변화가 올 수 있는 일이다.

둘째로는 大學教授의 學科 所屬意識이 지나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固定觀念이 되어 버린 無症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學科에 소속된 전임교수들에게 교양과목은 덤으로 해주는 강의가 되어 버린다.

이른바 敎養學部 시절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교양과정을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

는 현상이 강하다. 표면상으로는 元老교수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만, 실제로는 多數學級의 업무 부담과 의외로 많은 수업준비 부담에 늘라서 피해 버린다. 교양과정의 性格, 目的 및 方法은 달라져 가고 있으나 교수들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언제부터 대학이 學科中心으로 벽을 쌓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副專攻조차 성립이 안 되는 專攻學科教育만으로만 치달는 대학이 되어 버렸다. 전공학과 선택이 잘못되어 후회한다는 학생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부전공 희망생은 늘어나지 않는 學事行政도 바로 이 學科間의 벽이 두껍기 때문이다.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해야 하는 교양과목이나,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는 전공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의 未熟과 學科間의 두터운 벽을 쌓는 풍토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양교육의 專門敎授를 결코 탄생시키지 못한다. 藝術系 학생을 위한 歷史 강의는 人文系 학생과 달라야 하고, 社會系 학생을 위한 文學 강의와 科學系 학생을 위한 要目을 區別하는 작업이 前提가 된다면, 교양교육에 적합한 교수 要員은 많은 경문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教材構成能力의 具備와 機能이 첨가되어야 한다. 交替강의, 映像活用, 協同강의 등의 型式도 더 개발해야 할 것이고, 大學院生(博士課程)은 時間講師가 아니라 교양과정의 講義助教(T.A.)로서 元老敎授를 돕는 方法도 강구해 볼 만하다.

어느 學科에 소속하지 않는 敎授의 職分(Univ. Professor)을 有能한 元老교수에게 주어서 專攻에 구애받지 않고 受講할 수 있는 講座를 설정하는 大學이 생겨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그 교수의 강의에는 다른 專攻의 교수들이 더러 방청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만드는 대학은 생겨 나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 교수를 世界的 존재로 대학이 스스로 길러 준다는 생각에서 협조하고 支援하고 존경을 보내는 아량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

세째로, 大學 교양교육의 교과목 또는 교과내용 선택과정에서 高等學校에서의 교육과정을 별로 참고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 어느 水準인지

도 알려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高等學校 3학년 때보다도 영어 실력이 저하된 학생을 볼 때, 교양과정에서 영어학점을 요구하는 종래의 습성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實效를 의심받는 人文系 고등학교 제 2 외국어는 선택과목으로 더 심화하되 대학에서는 특정 學科에서만 요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大學入試의 전형방법을 대학에 一任하게 되면 대학별로 學科나 系列의 필요에 따라 學力考査의 成績이나 內申成績을 科目에 따라 比重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며, 外國語는 大學 단위로 자격시험 비슷한 及落制(P.F. System)만으로 선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고등학교(人文系)의 교육과정 原型을 참고 삼아 제시하여 본다(단, 이것은 우리나라 現行 교육과정과는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다).

<표 1>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原型

必 須	選 擇
一般國語	文法, 創作, 國文學史, 漢文 등
一般社會	地理, 國史, 世界史, 政治, 經濟, 社會學, 文化人類學, 法律(憲法), 犯罪, 倫理, 教育, 哲學 등
一般科學	物理, 化學, 生物, 地球科學, 數學, 統計 등
기 타	

이러한 原型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一般國語, 一般社會, 一般科學 등의 科目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것과 그러한 課程(科目)의 作成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어쩌던 大學의 교양과정의 경우와 그렇게도 닮았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에서의 교양 기초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가 대학에 와서도 비슷한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만약 고등학교 때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학생이라면 얼마나 대학에 실망을 느낄 것인지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現行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3번이나 되풀이되는 교양교육이 되어 버린다.

大學에서는 현재 교양과정에서 하고 있는 수

준의 基礎能力을 더욱 고등학교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入試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기초能力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國語·社會·科學의 基礎能力(知識이 아닌)이나 創意力은 고등학교에서 철저히 陶冶하여 주어야 한다. 資料處理力, 問題解決力, 發明·發見力, 科學的 思考力 등을 대학 入試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前世紀의 註釋學的 教育이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관을 치고 있는 것이다. 注入式교육을 비난하면서 入試는 注入式을 강요하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相互努力이 결실하다. 대학에서는 그것을 고쳐 보자고 교양과정에서 시도한다지만, 教授難·經營難·研究 不足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先決조건은 時間과 努力과 財政 그리고 勇斷이 과감하게 投入되었을 때만 해결이 가능한 난제이며, 이러한 改革을 否定하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理想論’이라고 애써 一笑에 부쳐 버리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이번 기회에 自省하고 싶다.

### 3. 解決을 위한 接近

교양교육의 性格規定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고 또 해석도 안 될 것이다. 理念的으로는 論議를 거듭해야 할 과제이지만, 교양교육의 目標은 각 대학에서 自律的으로 결정할 일이다. 本章에서는 있을 수 있는 目標들을 廣域的으로 구분하여 大學別 또는 系列別에 따라 선택·결정할 수 있는 資料를 제공하자는 데 뜻을 두고 論述하기로 한다.

假設的으로 교양교육의 科目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시켜 보기로 한다.

- ① 專攻修學을 위한 基礎能力培養科目(국어, 수학, 외국어, 논리학, 통계학 등)
- ② 專攻, 副專攻 또는 大學院 진학을 위한 探索科目
- ③ 學問의 폭을 넓히기 위한 系列別 또는 系列間의 隣近科目
- ④ 醫學, 師範, 法, 技術, 藝術 등 專門性을 위한 特殊 教養科目
- ⑤ 道德, 倫理, 人格, 審美 등 人間教育을 위

### 한 과목

- ⑥ 國家社會가 요구하는 政治理念 또는 軍事學 내지 訓練 등의 國民教育 과목
- ⑦ 宗教 등의 大學別 設立目的에 관련된 과목
- ⑧ 기타

교양과정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範圍로 나눌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 사람에 따라 또는 학과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흔히 中核科目이라고 부른다. 이 中核을 어디다 두느냐,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이다.

먼저 ‘누가’ 결정하느냐는 단계에서 학생, 교수 어느 한쪽에서 결정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대학 교육과정 작성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또 교양과정을 설정하는 科學的 節次도 매우 어렵다. 더구나 保守的인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 대부분 過去方式으로 여지 없이 돌아가고 만다. 서울의 傳統 있는 某私立大學校는 保守性으로 이름난 대학이지만, 敎務處長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연구와 강력한 說得으로 專攻必須의 要求학점을 9학점 이내로 축소시키고, 자기가 속하는 專攻에서는 3학점만을 必須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 信念과 추진력에 감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위원회라는 것이 각 대학에 있으며 교무처에서 이 결정을 집행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어는 국문과, 영어는 영문과 등에 맡겨지는 것이 공통된 운영 방식이 아닌가 싶다. 전공 學科의 教授定員은 제한되었고, 교양과정에 까지 專任교수 數를 擴大하지 못하는 私立大學의 애로 때문에 時間강사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양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성격을 바꾸어, 專攻科目에서의 開設강좌 중에서 교양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方途를 찾는 일은 앞서 말한 學科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서 가능하다. 강좌名에 있어서도 敎養國語, 敎養國史, 敎養英語 등의 이름은 없애야 마땅하고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水準別 事前評價(Placement Test)를 거쳐 적절한 전공과목 이수를 추천하든가 語學에서는 앞서 말한 及落制의 적용이 여러 모로 實效가 있을 것이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지나치게 구분하면 교양과목은 자연히 낮은 學問水準으로 下落한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교양과정도 4학년까지 이수 하되 점차적으로 科目數를 감소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전공에 따라서는 교양과목(학점)을 25%에서 50%까지로 그 폭을 넓혀 單科大學 또는 學科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 다만 그 대학의 그 학과가 생각하는 교양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의 열쇠이다. 교양을 전공과 엄격히 구분하는 학과나 대학에서는 교양을 적게 요구할 것이며,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려는 학과(기초학문 등)나 학생(대학원 진학생 등)은 교양이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양과목이 고등학교의 보충과목이 아니고, 또 전공의 준비과목도 아니라는 점이다. 교양이 많아야 한다는 견해는 美國 大學의 경우이고, 교양은 고등학교에서 철저히 하고 複數전공을 권장하자는 것은 유럽(특히 서독)의 경우인데, 둘 다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다. 大學(校), 學科, 地域社會, 그리고 國家的, 社會的 요청을 받아들여 교수(특히 교양교육을 이끄는)들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한 대학 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運營方式에 문교부의 태도 또한 큰 전환이 있어야 한다. 교양과정을 일부 교수 집단에게 위촉하여 劃一的 프로그램을 세워 주고 이 데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식민지 통치방법의 유물이다. 각 대학의 학과별, 계열별 특성을 허용해 놓고 그것이 非合理的이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을 경우에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위촉하는 것이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교육 내용의 통제는 行政的이기보다 교수, 학생, 그리고 社會集團에게서 더 큰 壓力을 받는 풍토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硬直된 單一案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100여 개의 수많은 大學의 系列과 學科에 맞지 않으며, 문교부는 도와 주고도 그 결과에 비난을 자초하게 된다. 대학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行政支援이 교양과정에까지 확대된 셈이다. 교양과정 운영의 自律化를 위해 대담하게 大學에 一任하되 굵은 線을 幅 넓게 그어 주면, 각 대학은 당분간 그 해걸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대학간의 정보 교환, 계획과 실험, 투자와 개발 등으로 경쟁적인 발전을 해 나갈 것이며, 엘리트 指向·專門職 指向·高等敎養 指向·産業技術 指向 등의 구체적 목표와 합致되는 교양과목이 다양하게 설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양교육은 일부 大學의 模型을 많은 類型의 大學에 劃一的으로 適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4. 大學體制와 敎養科目의 設定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最善의 單一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비슷한 狀況에 놓이고 만 것은, 新生大學(歷史가 짧은)들이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自律的으로나 他律的으로 開放性이 阻害받아 왔기 때문이란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교양과정의 名稱이 지나치게 硬直化하여 國民倫理는 國民倫理라는 이름이어야만 하고 宗教系 學校의 宗教關係 강좌나 政治學이 우세한 大學의 政治學 과목이 이를 代行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政府나 大學에 똑같이 責任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지적하고 싶으며, 교양國語·교양英語가 해당 학과의 獨占物이 되어 버린 것도 대학당국이나 교수들의 공동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교양과정의 敎科體制를 전적으로 새로 꾸며 본다고 했을 때 既成大學내의 適用은 기대하기 어렵도록 固定化된 성 싶다. 차라리 새로 綜合大學을 여러 개 類型別로 新設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만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大學의 目標, 性格, 類型이 교양과정의 科目과 그 운영方式을 결정하는 主要 因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特性化한다는 취지와 뜻은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은 앞으로의 대학을 이러한 類型으로 假想하여 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몇 가지 特性은 大學 自體 안에 單科大學으로 內在하는 Multiversity

의 概念도 있고, 英·佛과 같이 外形的인 구분이 뚜렷한 나라도 있다.

大學의 類型을 몇 가지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一般大學(人文, 社會, 自然科學 中心의 엘리트 指向)
- ② 專門職大學(官僚, 法官, 醫師, 教師, 經營者 등 專門職 養成)
- ③ 技術系大學(테크놀로지 中心과 產業 技術職 養成)
- ④ 藝術系大學(Conservatory 등)
- ⑤ 기타 特殊目的 單科大學 등

이 類型은 하나 또는 두 가지 機能에 力點을 두는 綜合大學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高等教育 分野를 망라하겠다는 體制를 벗어나자는 데 分류의 目的이 있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③의 概念으로 출발하여 다른 분야를 포함시켰고, 영국의 Ox-Bridge 型은 ①이고, Poly-Techniques 는 순수한 ③의 類型이다. 유럽의 音樂, 美術은 ④로 독립되었고, 프랑스의 師範大學, 官僚大學은 각기 分化된 ②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學의 特性化 내지 分化는 교양과정의 性格을 더 명료하게 구분짓는 데 合理的인 근거로 부여한다. ①型의 경우는 大學院 進學을 끝까지 指向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교양의 能力을 高等학교에서부터 학부 全域으로 넓혀야 할 것이며, ②, ③型은 碩士課程까지 확대하여 넓은 교양과정을 거친 학부와 석사과정에 중점을 둘 것이며, ④型은 大學院이라는 것을 必要치 않다고 규정하거나 교양과정은 最少限으로 減少시켜 社會機能을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類型과 前章에서 말한 教養科目의 分類를 對比시켜 보면, 아래 표와 같은 特性을 나타내 준다.

여기서 必須와 選擇의 구분을 지어본 것은 筆者의 任意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教養과목을 국어·영어·국민윤리·한국문화사·체육·교련 등으로 固定시키고, 大學의 特性化도 없이 교양과정의 改善를 論한다는 것은 無의미하기 때문에 大學의 單位體制 속에서 교양과목의 체계를 原點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表 2>에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科目分類에 대하여 약간의 註釋을 加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① 基礎能力科目이란 高等학교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大學에서의 修學能力, 또는 새롭게 요청되는 能力을 기르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국어, 외국어, 수학 등이 대표적인 과목이었으나, 이런 科目은 高等학교의 수준을 높이든가 P.F. System 으로 바꾸고, 그보다는 情報社會에 대처하는 資料處理能力 등 知識이 아닌 知的 能力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情報科學(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과 類似한 科目을 개발할 必要성의 主張이다. 여기는 정보이론, 컴퓨터, 論理學, 分析哲學의 기초과목이 포함될 것이다.

② 人間性教育, 倫理道德教育에 관한 과목은 文學, 哲學, 歷史, 宗教 등에 관련된 內容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과목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大學別로 人間교육의 目標에 맞게 要目을 開拓함이 좋겠다. 高等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大同小異한 韓國文化史, 도서관의 書籍을 읽는 것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哲學概論, 이름만 들어도 권태를 느끼는 國民倫理 등의 固

<표 2> 대학의 유형과 교양과목의 분류

大學 또는 學科의 特性	① 基礎能力科目	② 人間性教育科目	③ 探索的科目	④ 專門職 專修과목	⑤ 系列別 隣近科目	⑥ 政策的 科目	⑦ 大學別 要請과목	기타
① 엘리트 교육	必		必		必	必		
② 專門職 교육	必	必		必		必		
③ 技術職 교육		必		必	必	必		
④ 藝術 교육		必		必	必	必		
⑤ 特殊目的 교육								

定科目は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 대학 나름대로 研究와 投資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몇 대학에서는 每年 하나 들씩 개발하여 나가면서 實績을 올리고 있는 바 흔히 이를 先導科目이라고 부른다.

㉔ 探索的 科目이라 함은 엘리트敎育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學科別로 新入生을 모집하지 않고, 系列 또는 單科大學別로 모집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과목들이나 이를 위하여 별도의 강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실험대학을 통하여 이러한 入學方式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았다. 그러나 卒業 때 系列別로 졸업시키고 專攻과 副專攻만을 인정하는 體制 개선은 없이 단순히 入學전형 方法만을 고쳤고 學科 사이의 벽은 그대로 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㉕ 專門職 敎育을 위한 特殊科目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醫科大學은 6년이기 때문에 다소 교양과목이 발달되었고 다양하나, 法科生을 위한 社會心理學, 敎師를 위한 自然科學 등의 새로운 과목들은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 試圖이 빈번히 좌절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傳統的인 과목과 舊式學問(?)에 익숙한 엘리트 指向 大學 出身 敎授들이 專門職을 위한 特殊科目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不足하다. 특히 師範大學, 敎育大學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實效 없는 敎職科目과 부담 많은 교양과목에 매달렸다가 졸업하고 나면 사범대학 출신은 실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敎職科目은 사범대학의 교양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여 붙지도 않다. 敎科敎育 과목은 사범대학의 전공과목임은 論理上 明白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敎科概念이 점차 定立되지 않는다면 專門職을 위한 특수 교양과목은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㉖ 系列別 隣近科目이란 지나치게 細分된 한국 대학 學科들의 分科主義 敎育과정의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隣近科目을 대폭 권장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본 것이다. 이러한 科目들은 교양과정에서도, 전공에서도, 또는 부전공에서도 모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교양과정의 비중을 높이는 敎育과정 體制에서는

탐색과목의 성격으로 변질된다.

㉗ 政策科目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安保敎育, 政治思想敎育, 反共敎育, 경제敎育, 敎練 등의 총칭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미래을 로기와 新帝國主義', '第三世界 속의 韓國', '21세기의 民主主義' 등 대학내의 專門家들의 集團 思考와 作業을 거친 교양과목을 構想하자는 제안이다. 敎練의 경우만 하여도, 將校과정·下士官과정뿐 아니라 短期士兵복무과정 등 이수시간과 내용 수준에 구분을 두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며 특히 專攻科目과 軍服務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한 과제이다.

㉘ 宗教系 學校, 地域社會 特性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와 다른 교양과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社會福祉大學, 稅務大學, 產業技術大學, 體育大學 등의 目的이 뚜렷한 單科大學은 독자적인 科目의 이수를 허용하고 그 개발을 권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改革을 위한 戰略

理想과 現實의 架橋를 놓는 일은 成就를 위한 過程의 順次性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敎養科目을 가르칠 사람을 위주로 만들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 學生을 위하여 전체 敎育과정 속에서 교양과목을 개발해 내야 한다.

근래에 와서 몇몇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에서 ○○學概論과 같은 傳統的인 전공 入門式의 강의를 고쳐 새로운 교양과목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과묵한 탓으로 많은 자료를 얻지 못하였으나, 서울大學校 교양과정 영역 '문학과 예술'에서는 '동서양의 고전', '小說, 희곡과 연극', '문학과 사회', '인간과 언어', '음악의 이해' 등의 科目을 개발하였고, 延世大學校에서는 '現代社會와 人間의 문제'라는 과목을 설치하여 多學問의 접근과 交替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德成女子大學校에서는 '人間과 사회', '인간과 사상' 등의 과목을 개발하였다. 특히 '인간과 사상'에서는 서양, 동양 그리고 한국 사상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梨花女子大學校에서는 교양필수과목

의 개정과 선택교양에서 ‘文化와 哲學’, ‘환경과 人間’, ‘歷史의 이해’ 등 몇 과목을 先導科目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학이 교양과정의 매력도를 높이고 실효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당국의 투자 증대를 의미한다. T.A.의 배치, 수업부담의 감소, 대단위 교실의 환경개선, 敎育工學의 活用 등이 교양과정 개선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優待策과 더불어 制度化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교양선택,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과목을 애써 구분하지 말고, 學科別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선택은 학생에게 맡기면서 그 학점을 교양, 전공, 일반의 어느 요구에 맞게 구성

하더라도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도교수의 역할이기도 하다.

選擇과목 개선의 폭이 좁아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교육과정 構成이나 교과목 개설은 학과에 一任하는 전공과정 설정이나 기계적인 교양과정의 운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 대학(교)을 한눈으로 보고 이를 分析·評價하고, 개선을 위하여 時間(忍耐), 人力(技術)과 財政(科目數 증설, 先導科目 연구비) 등의 아낌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유익하고 새로운 교양과목을 개발할 수 있는 投資는 敎授, 大學當局 그리고 政府의 共同意志가 合致되었을 때 비로소 그 成果를 極大化할 수 있을 것이다. \*